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16.(일) 11:00,
(지면) 2023. 7. 17.(월) 조간

배포 2023. 7. 14.(금) 오후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 내항선박 100척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7일(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이하 '바다 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 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앱 주요기능)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 탑재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내비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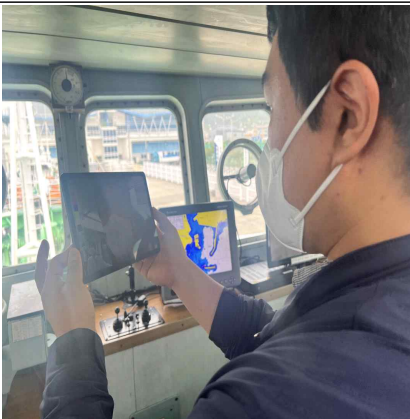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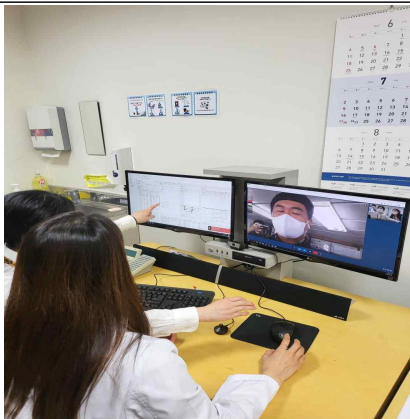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책임자	팀 장	권순태 (044-200-6141)
		담당자	사무관	박기범 (044-200-6233)

참고 1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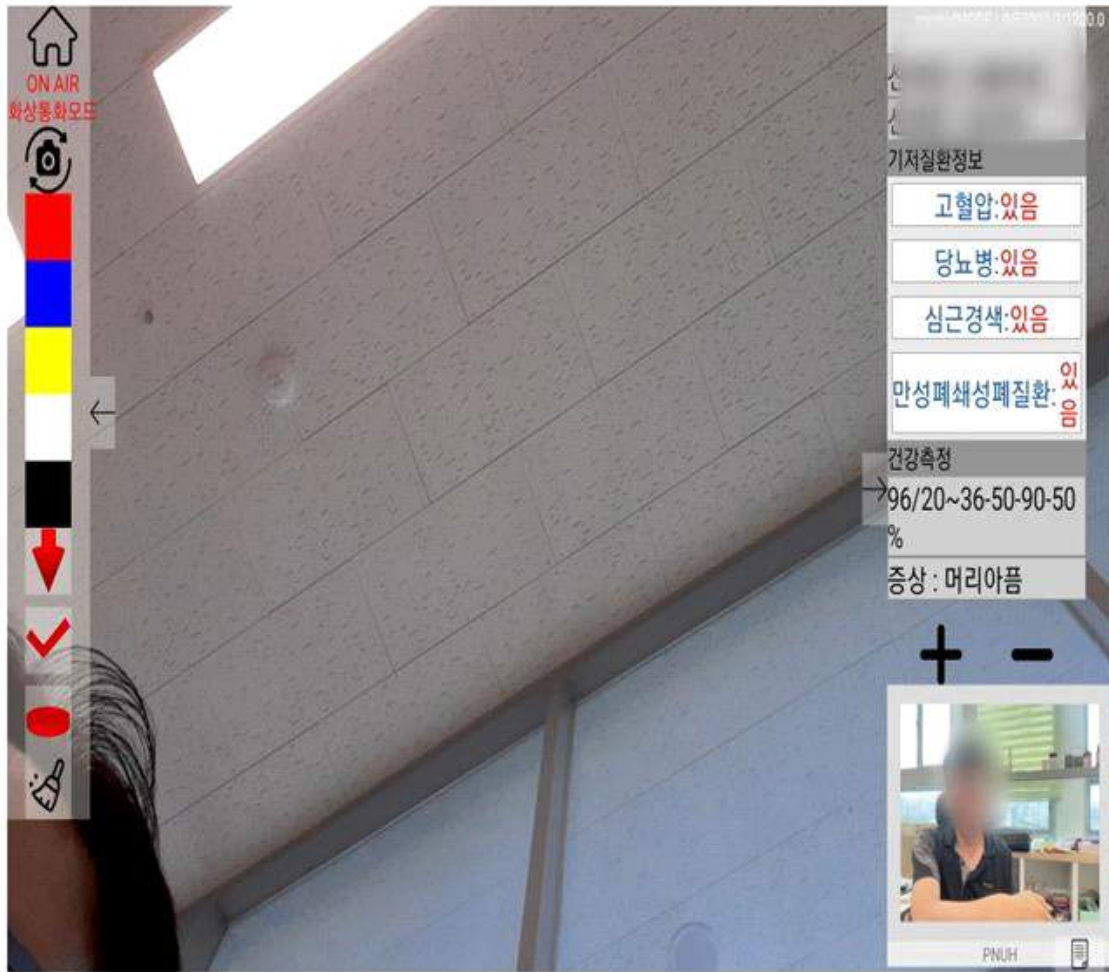
- (추진배경) 내항선박 종사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관/대상) 시범사업기관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이 참여하고, 어선·화물선 및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원격의료지원용 태블릿* 또는 바다내비 표시장치 영상·음성 통화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처치 지원 및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 * 이용자 활용도 분석 등을 위해 시범선박 100척 중 90척은 태블릿으로, 10척은 바다내비 표시장치(영상·음성통화 기능)를 통해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의료키트 보급) 태블릿, 혈압기, 혈당계, 체온계 및 부목, 피부봉합 반창고 등 구급약품을 가방에 넣어 선박에 제공
 - 태블릿에는 화면에 상처부위를 표시할 수 있는 드로잉, 증강현실(AR) 기능과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예약 기능 등이 탑재된 '앱' 설치
 - (의료지원 서비스) 선원 응급처치 지원 및 주기적 건강상담
 - 건강상담은 선박당 최대 월 2회(희망시) 제공

<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

선박(의료지원 요청)	시범사업기관(부산대학교병원)
△ 태블릿(LTE-M 선내 와이파이) 또는 △ 바다내비 단말기(LTE-M)	△ 환자상태 확인 및 처치지원(조언) △ 정기적 건강상담 제공
LTE-M ↔ (동영상 음성 통화)	
 < 선박 >	 < 의료기관 >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의료키트

참고 2

원격 의료지원 앱 화면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 탑재